

“재생에너지·RE100 최적지 땅끝 해남에 투자하세요”

해남군 한국재생에너지 매칭포럼 참가 투자설명회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 브리핑 등 기업 유치 활동

해남군이 RE100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8일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가해 해남군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B2B(기업간 거래) 현장에 참여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교류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재생에너지 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선언한 한국 RE100 멤버스 기업들과 한국중부발전, 보성산업, 피

브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B2B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해남군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 개막행사 후 기조발표로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져 관심이 집중됐다.

발표에서는 ‘해남, 재생에너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단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각종 개발사업 현황도 알리는 자리가 됐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해 기업 이전·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오는 6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 추진되고 있

?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1조 4400억 투입, 인구 3만 6600명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총 165만㎡(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벨트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반경 10km 이내 4개 지구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는 총 10개, 사업비 약 3000억 원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과 맞물려 ‘꿈의 도시’의 청사진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국의 기업들도 속속 RE100 이행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투자유치와 기업협동의 확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에 대한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리 융복합산업 이끈다... ‘영광 찰보리 어울터’ 개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영광 찰보리산업 랜드마크 역할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 특구인 영광군에 관련 산업 공익을 증진 시켜줄 거점 공간이 마련됐다.

전남 최대의 보리 산지인 영광에선 매년 약 3만 t을 웃도는 보리가 생산된다. 전남 생산량의 26%, 전국 생산량의 12.5% 가량을 점유할 만큼 보리산업이 발달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남면 포천리 일원에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을 이끌어갈 ‘영광 찰보리 어울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영광 찰보리 어울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들여 군남면 포천리 지내들 일원에 건립됐다.

규모는 건축면적 718.5㎡, 연면적 864.1㎡, 지상 2층으로 신축했다.

찰보리 어울터는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체와 지역공동체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일원에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을 이끌어갈 ‘영광 찰보리 어울터’가 개관했다.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 준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관계자들과 농업인들께 감사 드린다”며 “어울터를 중심으로 영광군 찰보리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협 기자 kcw@

1회용품 없는 영암왕인축제

탄소 32t 감소 효과 폐기물 7t 감량

영암군이 최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범 실시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폐기물 감량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왕인문화축제 시작 전 음식접·푸드트럭 모집·공고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대화용기 사용을 권장했다.

또 축제장 내 푸드코트와 시식코너 등 모든 부스에 13종의 대화용기를 제공했다. 대화용기를 사용한 축제 방문객들은 반납 부스에 이를 되돌려줬다.

대화용기 사용으로 전년 축제에 비해 영암군 추산 7.1t의 폐기물을 감량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32.6t 감소와 미세먼지 226kg 감축하고, 30년생 소나무 3700여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량에 해당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무안군 농식품부 ‘가루쌀 경진대회’ 우수상

무안 가루쌀이 올해 처음 열린 ‘가루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무안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태산영농조합법인(대표 이동욱)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의 품종을 말한다.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기존 쌀 가공식품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힌다.

무안군은 올해 가루쌀 재배단지를 170ha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전국 생산단지 38곳 중 10곳이 경합을 벌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5곳이 선정됐다.

태산영농조합법인은 공동 영농 부문에서 주요

농작업별 공동영농일지를 작성·관리하고, 법인 자체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회원 농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에 높은 평점을 줬다. 태산영농조합법인은 재배 지침에 따라 이앙시기(6월23일-7월5일), 재식 주수(80주) 등을 준수하고 호우 피해 때 공동방제를 지침을 지켜왔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충남 예산의 가루쌀 재배단지 권역별 순회교육이 열리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산영농조합법인은 무안군 승달장학금으로 상금 6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 주곡 생산을 선도하는 경영체에 뜻깊은 경사가 있어 축하를 전한다”며 “벼 재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 생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대·신안군 ‘2026 세계 섬학술대회’ 유치

50여개국 전문가 2000여명 참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제20회 세계 섬학술대회(Islands of the World Conferences) 유치를 성공해 오는 2026년 6월 말 신안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섬학술대회는 세계 섬 연구기구연합인 ISISA(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가 2년마다 해외 주요 섬 지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 전문학술회의로서 50여 개국에서 2000여 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신안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 섬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섬의 회복력과 혁신’이란 주제로 1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유치 제안서를 작성한 흥선기 교수는 “지난해 11월 유치 제안서를 ISISA 본부에 제출, 긴장하며 기다렸다”면서 4대 1의 해외 섬 국가와의 경쟁을 뚫고 2026년 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포대가 지향하는 글로벌 해양 특성에 맞춰서 세계 섬 발전을 견인하는 대회”라며 “아름다운 한국의 섬을 세계에 알리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신안군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오는 6월 25-29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개최하는 제19회 대회에 참석, 본격적인 2026년 대회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에 참여한 경로당 이용자들이 인지기능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군 392개 경로당 찾아 치매 조기검진

영광군이 올 한 해 392개 경로당을 찾아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치매조기검진은 영광에 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2층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아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경로당을 찾아가 일대일 문답식 검사를 1인당 10분간 벌이며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며 인지 저하 여부를 선별하고 있다.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고령자는 치매안심센터나 협약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치매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와 조호 물품, 환자·가족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한다.

영광군 측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 발견 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중증 상태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치매안심센터(061-350-4817)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기 검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협 기자 kcw@kwangju.co.kr

신안 자은도 뮤지엄파크서 피아니스트 도전하세요

피아노섬 축제 연주 참가 신청

신안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피아노 선율을 울릴 기회가 펼쳐진다.

신안군은 100+4 피아노섬 축제 둘째 날인 이달 28일에 진행되는 ‘나도 100+4 피아니스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바이엘 이상 수준의 연주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이 부족하면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안 100+4 피아노섬 축제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열린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해 신안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열린 100+4 피아노섬 축제 ‘나도 100+4 피아니스트’ 참가자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진도군, 섬 지역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19일까지...농기계 교육도 병행

진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나섰다.

진도군은 가사도, 관매도, 조도 등 섬에 거주하며 농기계 수리에 불편함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수리와 사용 교육을 함께 한다.

11일 조도 육동, 신진, 읍구마을을 대상으로 육동마을회관을 방문해 농기계 수리와 현장 교육을 시작한다.

19일까지 이어질 이번 순회 수리·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소형기종을 대상으

로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 방법 등을 현장에서 바로 실시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비 최대 2만원까지를 무상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도서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와 현장실무 기술교육으로 자가정비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며 “농기계 수리·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민들의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관리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